

첨단산업·농어업 융합... 새 농어촌 모델 만든다

해남, 대동·한화솔루션과 미래 농업 모델 구축 '맞손'
AI·스마트 농업 전면 도입...첨단기술 작물재배 투입

해남군이 대동, 한화솔루션과 손잡고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미래농업 모델 구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명현관 해남군수와 대동 이광옥 국내사업부부장, 대동에이아이랩 최준기 대표, 한화솔루션 에너지정책실 송용식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스마트 농업 협력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전국 최대 농업군인 해남과 국내 1위 농기계 기업 대동, 에너지·소재 기술 기반 선도기업 한화솔루션의 협력을 위한 공동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또 배추와 고구마 등 해남 주요 농산물의 생산 과정에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솔루션을 적용해 미래농업 모델을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농기계 데이터 중심 통합관

제 시스템 구축, 군 농업연구단지 내 노지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조성, 해남 배추 재배 첨단화를 위한 노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 농업 인공지능전환(AI) 플랫폼 등 4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AI컴퓨팅센터와 화원산단의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등 AI·에너지 전략산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의 최대 산업인 농업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미래 농업으로의 대전환과 신성장동력 육성에 본격 나선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첨단산업과 농업이 융합하는 새로운 농어촌 모델인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명현관 해남군수와 대동 이광옥 국내사업부부장, 대동에이아이랩 최준기 대표, 한화솔루션 에너지정책실 송용식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스마트 농업 협력간담회를 가졌다.

향후 관련 기업들과 함께 농업·에너지·AI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로 확

산되는 AI·스마트 농업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이제는 농업도 데이터

와 AI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해남의 풍부한 농업 자원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농어촌수도 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남군과 대동, 한화솔루션이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진도 공용터미널 '새단장'...교통복지 강화
냉온풍기 설치 등 시설개선...저상형 전기버스 도입

진도군은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진도 공용터미널' 시설개선 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시행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는데, 공용터미널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진도군은 공용터미널 건물의 외벽을 보강하고, 오래된 창호를 교체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천장에 사용된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고 냉난방이 가능한 냉온풍기를 설치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이와 함께 진도여객은 '저상형 전기



버스' 1대를 도입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저상형 전기버스'는 일반 이용객은 물론 노인과 교통약자의 승하차 편의를 높인 차량으로, 군은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저상형 전기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에서 더 편안해질 때까지 교통 복지와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강진, '지역 축제 다회용기 도입' 효과 입증

폐기물·온실가스 등 감축
"친환경 축제 운영 모델 정착"

강진군이 지역 축제에서 다회용기를 도입하며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 등에서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축제 폐기물 실태조사'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남도(환경정책과), 강진군(환경과),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지역 내 주요 축제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다회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축제의 방문객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평균 66.3g인 반면, 다회용기를 사용한 축제는 50.5g으로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제 폐기물 중 일회용품 발생량은 방문객 1인당 22.6g에서 14.2g으로 37% 이상 줄었다.



강진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축제 폐기물 실태조사'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품목별로는 1회용 종이컵,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컵 등의 사용 비중이 크게 감소해 다회용기 도입에 따른 1회용품 대체 효과가 명확히 확인됐다.

또 1회용품의 생산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회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축제의 방문객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58.4gCO₂

였지만, 다회용기 사용 축제에서는 35.8gCO₂로 약 39% 감축 효과가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다회용기 사용이 환경적·정책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이 수치로 입증됐다"며 "앞으로 지역축제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축제 운영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영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사는 곳 중심 실행계획 심의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통합지원협의체' 정기회의를 열어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영암군민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사는 곳에서 받는 등의 성과 목표를 담은 내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돌봄, 영암-올케어'를 비전으로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지원을 통한 연계하는 영암형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 발굴부터 통합 환경, 자원,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까지 돌봄의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묶어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운영하는 체계 구축이 목표다.

이를 뒷받침하는 영암군 통합지원협의체는 행정·보건·의료·복지·주거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통합돌봄 계획 수립·평가, 시책 자문·조정, 관계기관 연계·협력, 민·관 자원 발굴·협업 강화 등을 맡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